

2025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노치형 목사
(중증로병동제)

가·정·예·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모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정의라고 곡해하는 상황, 나 개인의 인생을 부담 없이 즐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시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합리화로 넘어가려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전합니다. 당시 비인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지하 감옥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과 구원자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함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증거하며, 결국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약 2:13).

참 기쁨은 ‘염려 없는 넓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합니다(빌 2:5).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염려함이 없는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빌 4:5). 염려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눅 21:36).

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과 간구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드러져야 하며, 감사함으로 아벨 때 온전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헛된 생각과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막혔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번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만심이나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가는 말

2025년 중추절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리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통해 기뻐하는 삶을 낳습니다. 순간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경배와 찬양 40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4:4~7.....	가족 중에서
설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찬 191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들어가는 말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거짓과 속임수’를

추·모·예·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도	<시편> 16:1~11.....	다같이
찬송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찬 481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5:2~4.....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 동안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부르세요!	설교자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찬 436장).....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부르세요!

들어가는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2025년,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찾아가십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교실은 ‘자격증 교실’, ‘어학 교실’, ‘창업 교실’, ‘IT/디지털 교실’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예수교실’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

고, ‘만약 예수교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니 예수교실에서 배우게 될 노래는 ‘구원 탄생’, ‘생명 살림’, ‘화평’, ‘진리’, ‘승리’, ‘십자가’, ‘부활’의 노래일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겨낸 자의 노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거졌된 우상을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에 존 재하며 늘 미혹하는 거졌된 우상들을 거부

하고 무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노래했던 사람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시 69:30~31)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거짓을 노래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노래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노래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겨낸 자들로서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를 건너며 “여호와와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출 15:1~2)라고 선포했습니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겨낸 자들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과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빌 3:21),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식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겨낸 자로서 노래하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